

12월 식중독 주의 정보

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요령



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찾아온 **노로바이러스**. 감염력이 강해 2차 감염이 흔히 일어나는 바이러스이므로, 환자 발생 시 2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.

노로바이러스

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 (11월~4월)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, 복통, 구토 증상이 나타남

감염·전파경로

- 섭취**: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*이나 물(지하수) 섭취
* 채소류, 굴 등 오염된 패류
- 접촉**: 환자 분변과 구토물, 침,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

감염·전파 경로별 예방법

1 섭취

-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* 조리 시 감염 예방 가능
* 중심 온도 85℃, 1분 이상 가열·섭취



2 접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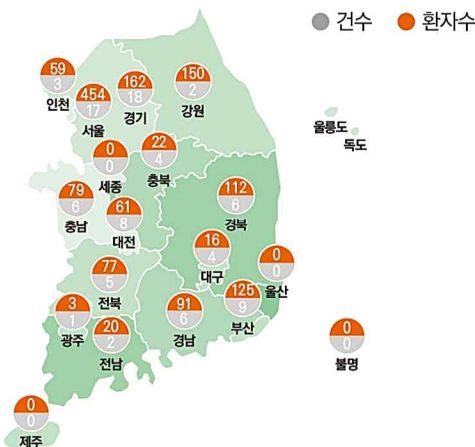
- 2차 감염* 차단으로 예방 가능
* 분변·경구감염, 환자 및 오염된 환경 접촉, 구토물 등의 비말감염 등



-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**30초 이상** 손씻기
- 종사자 의심 증상 발생 시 **조리 참여 금지**
- 세척·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**예방수칙 준수**
-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접촉했던 문손잡이 등을 **주기적 소독***
* 예시) 염소소독액 1,000ppm : 염소소독제 4% 제품을 40배 희석(염소소독액 25ml + 물 975ml)하여 사용
-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*로 **감염되지 않도록 주의**
*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
- 유아 등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**등원 자제**



식중독 발생지역 현황 (5년('19~'23년) 12월 통계)



식중독 원인균 현황 (5년('19~'23년) 12월 통계)



식중독 발생시설 현황 (5년('19~'23년) 12월 통계)

